

91141R



Mana Tohu Mātauranga o Aotearoa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Level 2 Korean 2024

**91141 Demonstrate understanding of a variety of
written and/or visual Korean text(s) on familiar matters**

Credits: Five

RESOURCE BOOKLET

Refer to this booklet to answer the questions for Korean 91141.

Check that this booklet has pages 2–4 in the correct order and that none of these pages is blank.

YOU MAY KEEP THIS BOOKLET AT THE END OF THE EXAMINATION.

TEXT A: 샬롯의 댓글 (Charlotte's comments)

Read an article from a former school student and comments from a current student.

학교 웹사이트
졸업한 학생의 기사

안녕하세요. 저는 지나예요. 한국인 가수예요. 저는 열다섯 살 때 엄마와 오克兰드로 유학을 왔어요. 엄마는 저에게 미국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라고 했지만, 저는 뭐를 공부하고 싶은지 몰라서 가지 않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한국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가수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는 저를 응원하며 한국에서 가수가 될 수 있게 도움을 줬어요.

댓글

저도 지나처럼 대학교에서 뭘 공부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며 파트타임 일을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저는 대학교에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미술도 좋아하고, 과학도 좋아하고, 체육도 좋아하지만, 요리를 제일 좋아해요. 아빠는 대학교에서 과학을 공부하라고 해요. 엄마는 여행을 하면서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해요. 엄마는 제가 야채가 많이 들어간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요리를 만들어 주면 좋아해요. 제가 만든 요리를 엄마가 맛있게 먹으면 기뻐요. 졸업 후 한국에 가서 여행을 하면서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지나의 기사를 읽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샬롯
Year 12

TEXT B: 선물 (Gifts)

Read text messages between two class captains, Teo and Mina.

Glossed vocabulary

바우처 voucher



올해 한국어 수업은 정말 재미있었어. 특히 한국 문화를 많이 배웠어. 다 같이 한국 영화를 보고 한국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은 게 제일 재미있었어❤️

맞아. 영화관 가는 버스 안에서 BTS 노래를 들었어. 선생님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춰서 재미 있었어🥳



우리가 한국 여행 갈 수 있게 일 년 동안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 선생님과 마지막 날이어서 슬퍼. 무슨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

이거 봐. 내가 어제 인터넷에서 본 기사야.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선물	
레스토랑 바우처	초콜릿
영화 티켓	꽃
콘서트 티켓	



와아! 여기서 선택 하자. 선생님은 단 음식을 안 좋아하고 꽃을 좋아해.

응, 요즈음 따뜻해서 예쁜 꽃을 많이 팔 것 같아. 영화 티켓은 어때? 선생님 취미가 영화 감상이야.



선생님이 집에서 영화 보는 게 더 좋다고 했어. 레스토랑 바우처는 어때?

선생님이 요리를 잘해서 집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했어.



그럼 좋은 선물이 하나 있네. 그걸로 할까?

선생님이 좋아할 것 같아! 그리고 반 친구들과 함께 편지를 쓰는 건 어때?



좋은 생각이야. 👍

TEXT C: 블로그 (Blog)

Read a blog by Minsoo, who is from Korea and is in New Zealand as an international student.

Glossed vocabulary

이미 already

민수의 블로그

할머니가 건강이 안 좋아서, 나는 2월에 두 달 동안 한국에 갔었다. 지금은 건강이 괜찮아져서 식사도 잘 하시고 산책도 잘 하신다. 한국에 있는 동안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서 행복했다. 이모에게 불고기 만드는 것을 배우고, 할머니와 공원에 자주 갔다.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고 사진을 많이 찍었다. 앞으로 할머니와 자주 전화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뉴질랜드에 돌아왔는데 바로 영어와 수학 시험이 있었다😓 수학은 괜찮았고 영어는 성적이 안 좋았다. 그리고 3월에 학교에서 배구팀이 이미 시작됐다. 올해도 학교에서 배구팀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한국에 있을 때 TV에서 축구를 봤는데 재밌었다. 그래서 2학기에 축구팀에 들어갔는데, 축구가 배구보다 재미있다. 내년 축구 경기를 위해 연습하고 있다. 반드시 이기고 싶다!

3학기 때 영어를 잘 하고 싶었다. 그래서 방과 후 스터디 클럽에 들어갔다. 클럽에서 반 친구 피터와 친구가 됐다. 피터는 영어를 잘 하고, 수학은 잘 못한다. 피터와 같이 공부 하면서 영어가 조금 좋아졌다. 피터는 나에게 영어 쓰기를 도와주고 나는 피터에게 수학을 도와줬다. 10월에 영어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좋아졌다. 내년도 화이팅!